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

익산시, 지역 상생 돌봄서비스 확충… 복지인프라 '강화'

익산시가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의 주거 및 복지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2일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있는 자생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특별지원구역 선정으로 앞으로 26년까지 4년간 총 9억8,500만원(국·도비 각50%)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는다.

시가 제출한 사업명은 '주민 모두가 행복을 공유하는, 다이로움 동산만들기'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및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이곳 지역은 노인 및 취약계층 비중이 높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복지 및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시는 복지사각지대 사전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

주요 내용은 △복지플랫폼 구축 △고립가구 지지기반 형성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특히 시는 지역이 상생하는 돌봄서비스 확충으로 사회적 돌봄계층 초밀집 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 등에 민·관 연계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돌봄 지지기반 조성에 힘쓴다.

이에 따라 첫해인 올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 복지 자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사회보장특별구역 지원사업을 계기로 동산동 지역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다이로운 익산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전북 익산시,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2일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다.

'노적성해' 똘똘 뭉쳐 미래개혁

익산시, 검은토끼해 시무식… '원팀, 민생 강조'

익산시는 2일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은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직원 약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과 한해의 청사진을 그리는 동영상 상영, 김성도 녹색도시환경국장의 공무원 헌장 낭독 및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무식에 앞서 간부공무원들과 팔봉 군경묘지와 여산 충혼탑에 들어 순국선열을 참배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사자성어 노적성해(露積成海)와 같이 전 직원이 똘똘 뭉처 더 나은 익산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앞서 정 시장은 새해 직원들에게 편지 '어벤져스도 팀워 시대'라며 "올 한해 어려운 시기될 수 있지만 원팀으로 초인적 힘을 발휘해 민생 돌파해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서민의 삶을 관통하는 정책을 통한 일상의 변화 △삶의 가치를 높이는 쾌적한 정원 도시 조성 △익산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산업 선도 △민선7기 역점 사업의 성공적 안착 △탄탄한 복지인프라와 교육을 통한 미래 준비 등 5개를 올해 시정 목표로 내세웠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사랑의 마음! 기부로 표현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자… 이벤트 실시

군산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 및 군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상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군산시에 기부한 자로, 기부 순서와 기부금 달성액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기부 순서는 100번, 300번, 500번, 700번, 1,000번째 기부자이며 기부금 달성액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달성 시 기부자다.

이중 기부순서 100번과 1,000번째 기부자와 기부금 달성액 1억원 달성시 기부자는 군산사랑상품권 20만원을, 나머지 당첨자는 5만원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살리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될 제도"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이벤트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군산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 1일 본격 시행된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군산시에 기부를 하면 이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공제)과 지역업체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을 통한 지역 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중기 경영안정 400억 지원… 자금난해소

익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에게 육성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집중한다.

시는 지역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4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해 지역 업체들에게 연중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시의 융자지원을 결정받아 국민은행을 비롯 기업은행, 농협 등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시는 최대 3~4.5%로 이자를 보전해 준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공고일 현재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 고용인원 2명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해당된다.

선정된 업체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설치,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기간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하면서 일반기업은 3%, 일자리우수기업, 우수향토기업, 여성기업은 0.5% 추가 지원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원할한 자금융통을 위해 적기에 이자를 지원하면서 기업인들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신청접수는 2일부터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iksan. 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익산시 기업일자리과(063-859-574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26일부터 2023 읍면동 신년대화 시작

군산시는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 나운1동을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대화는 실질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직접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답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장을 배석, 신속하게 처리 후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3 계묘년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신년대화 시작과 더불어 시장과의 톡&톡과 읍면동장 현장소통행정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콘텐츠팩토리 신규 입주기업 모집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분야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 4개사를 신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로 모집 대상은 캐릭터, 광고,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콘텐츠팩토리(해망로146-24)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preonion@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 시기는 오는 4월 5일이며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보건소, 학교 주변 태양광 금연표지판 설치

군산시 보건소는 2일 학교 주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10개소에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 절대정화구역(출입문을 기준으로 직선 50M 이내)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태양광 금연표지판 설치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흡연 민원이 반복발생했던 학교 10개소(신풍초등학교, 용문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산북중학교, 제일중학교, 서흥중학교, 동원중학교, 진포중학교, 상업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를 선정해 설치했다.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은 기존 금연안내판과 달리 야간 식별이 용이해 시각적 홍보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시설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